

동성애 정당화 퀴어신학은 이단 사상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살롬나비상임대표/송실대 명예교수), 2018.10.20. 개혁신

2019년 10월 바이어하우스학회

머리말

필자도 처음에는 ‘동성애 이슈는 단지 윤리적 이슈지 교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성애가 교회에까지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덕스럽지 못하니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이 이슈를 보다 신앙교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사상사적으로 마르크시트적 인류문화적 성혁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서¹⁾ 동성애 문제는 단지 윤리적 이슈를 넘어서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가 하는 교리적 문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만히 일어나 믿음에다 율법 행위를 부가하려는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아나테마”(Anathema)를 선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초대교회의 은혜교리에 공로교리를 첨가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킨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대들보 교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동성애를 수용하느냐 않느냐는 단지 한 교인의 개인 윤리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교회와 신학교의 영적 정체성이 결정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총신대 신대원 기독교 윤리학교수 이상원이 퀴어신학의 괴기한 교리에 대하여 원전 『퀴어신학』(*Queer Theology*)²⁾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적 개혁정통신학 관점에서 기본적인 비판을 선구적으로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³⁾ 그리고 합신대 조직신학 교수 이승구가 제15회 살롬나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⁴⁾도 정통개혁신학에 입각한 예리한 비판적 통찰과 아울러 이에 대한 풍부한 학술적 자료를 비판적 연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구약신학에서는 장신대 교수 배정훈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라는 논문에서 탁월한 비판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⁵⁾

I. 동성애 이슈는 단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악”이다.

신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확실히 동성애를 가증한 악(הבועות, 토에바, detestable)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1) 김영한, 『젠더주의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두란노, 2018.

2) Loughlin, Gerard, ed.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Gerard Loughlin, “Introduction: The End of Sex,” in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erard Loughlin (Malden: Blackwell, 2007), 1-34; Mark D. Jordan, “God’s Body,” in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erard Loughlin (Malden: Blackwell, 2007), 281-292.

3) 이상원,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in: 「기독교 동성애 대팩 아카데미」, 2017.2.20. 343-367.

4) 이승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출처: 종교개혁 5백주년 기념 제15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동성애, 과연 인권인가?』 백석대, 2017.11.24., 27-42.

5) 배정훈,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킹덤박스, 2016, 43-73.

1. 구약(창세기, 사사기, 레위기, 에스겔)의 경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5절) 룻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6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창 19:5-7)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22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삿 19:22-23)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תבועה, 토에바, detestable,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49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 16:49-50)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렘 23: 14).

2. 신약의 경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26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9절)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II. 쿼어신학의 신론, 기독교론,

I. 신론, 삼위일체론

1.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론, 남신 그리고 범재신론

퀴어 신학자들은, 오랜 신비주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불가지론을 말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은유(metaphor)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다”⁶⁾ ‘퀴어 신학자들’(Swicegood, Althaus-Reid, Johnson, Cornwall 등)은 결국 ‘퀴어 하나님’(queer God)을 요구한다.⁷⁾ 여성 퀴어신학자 콘웰은 피력한다: “알타우스-레이드 저서는 퀴어이론과 후기 식민지 이론을 정치학과 경제학과 함께 엮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퀴어(*God is also queer*)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주장한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추방당해서, 변두리 사람들, 특히 정치적, 성적 그리고 젠더 소외자들(political, sexual and gender dissidents)과 함께 계신다.”⁸⁾

퀴어신학은 하나님을 남근을 지닌 남신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어떤 퀴어 신학자는 삼위일체는 “세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하는 것”(gay, sexual threesome)을 표현한다고까지 주장한다.⁹⁾

2. 신자와 성애를 나누는 남신: 하나님에 대한 외설적 해석

퀴어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신자들과 성애를 나누는 분으로 묘사한다. 영국 더럼(Durham)대의 게이(gay) 로마 천주교 퀴어신학자 제라드 로홀린(Gerard Laughlin)은 에스겔1:27에 있는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기(남근)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로홀린은 에스겔16:8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를 성관계 갖기 위해 자리에 누운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 장면은 특히 합법적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강간하는 장면으로 해석한다.”¹⁰⁾

<반론> 1) 하나님을 남신으로 해석: 몸을 지니시지 않은 영적 존재인 성경의 하나님 모독

로홀린이 에스겔 1장 27절의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표현을 “하나님의 성기”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남신으로 보고 성기를 지닌 분으로 본다. 이는 외설적(猥褻的) 해석으로 전혀 비성경적 해석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몸을 지닌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남신도 여신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남근을 지닌 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젠더주의적 해석이다.

2) 그의 패역한 백성에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6) Cornwall, “Queer Theology and Sexchatology”

7) Thomas L. P. Swicegood, *Our God Too* (New York, NY: Pyramid Books, 1974); Marcella Althaus-Reid, *Indecent Theology* (London: Routledge, 2000); idem, *The Queer Go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Jay Emerson Johnson, “A ‘Queer God’? Really? Remembering Marcella Althaus-Reid,” Center for Lesbian and Gay Studies, Pacific School of Religion (March 5, 2009).

8) Cornwall, “Queer Theology and Sexchatology”

9) Brown, *A Queer Thing Happened to America*; “The Darker Side of LGBT Theology: From Queer Christ to Transgender Christ,” available at: <https://stream.org/the-darker-side-of-lgbt-theology-from-queer-christ-to-transgender-christ>.

10) Gerard Laughlin, “Omphalos,”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125-26.

에스겔 16장 8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은 처녀를 강간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주신 것을 옛 중동 지역의 결혼 예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옛 중동에서는 남자가 겹옷을 가지고서 여자를 덮음으로써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상징적인 몸짓을 하였다.¹¹⁾ 에스겔은 그 지역의 풍습 문화적 언어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I. 기독교론은 외설적 기독교론

1. 역사적 예수를 동성애자 내지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으로 간주

1) 역사적 예수는 동성애자라고 왜곡

퀴어신학자들(Montefiore, Jennings 등)은 예수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¹²⁾ 여성 퀴어신학자 (Isherwood 등)는 “퀴어링 그리스도”(Queering Christ)라고 말하기도 한다.¹³⁾ 패트릭 쉐도 퀴어 성해방 승리의 상징인 “퀴어 그리스도”(Queer Christ)를 선언한다.

이들은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가 제자 요한과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23). 이러한 해석은 전혀 본문의 맥락에 맞지 않은 젠더주의적 왜곡이다.

<반론> 제자를 사랑하는 예수와 신실한 제자인 사제 관계를 왜곡하는 외설적 해석.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요 13:23; 19:26; 20:2; 21:7, 20)는 제자 자신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총애를 받는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2) 성욕신한 예수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자웅동체적 존재로 해석

여성 퀴어신학자 엘리자베스 스튜어트(Elizabeth Stuart)는 성욕신하신 아기 예수의 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지닌 몸이었다고 해석한다. 스튜어트는 그 근거로서 예수님은 “남성

11) 에스겔 16장 8절에 대한 관주 해설, 독일성서공회판, 대한성서공회, 1997, 1301

12) 그 대표적인 예로 H. W. Montefiore, H. W. “Jesus, the Revelation of God,” in *Christ for Us Today: Papers read at the Conference of Modern Churchmen*, Somerville College, Oxford, July 1967, edited by Norman Pittenger (London: SCM Press, 1968), 109(“The homosexual explanation is one which we must not ignore.”); Theodore Jennings, Jr.,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Cleveland: Pilgrim Press, 2003)을 보라.

13) Lisa Isherwood, “Queering Christ: Outrageous Acts and Theological Reflections,” *Literature and Theology* 15/3 (2001): 249-61; Robert E. Goss, *Queering Christ: Beyond Jesus Acted Up*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2).

으로 탄생하셨으나 순전히 여성의 몸의 요소들로만 구성되었음”을 지적한다: “아기 예수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기존의 인간 존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¹⁴⁾

<반론> 예수의 몸을 자웅동체로 보는 것은 젠더주의적 해석이다.

퀴어신학이 예수의 몸이 기존 인간 존재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즉 남성과 여성을 모두를 한 몸에 지닌 자웅동체로 보는 것은 이단적 해석이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 예수는 육체를 지니지 않고 가상적 몸을 입고 영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경과 정통개혁신학에 의하면 예수는 자웅동체가 아닌 남성 아기로 태어 나셨고 성장했고 남자로서 사셨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로서 다가가 물을 달라고 청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 같이 반응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요 4:9). 제자들도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고 돌아와 예수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요 4:27). 예수 자신은 십자가 상에서 자기에게 다가온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임을 소개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요 19:26).

3) 정통개혁신학: 예수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하면서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인간이 되셨다고 증언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7). 예수의 몸은 특별한 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이었다.¹⁵⁾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b)고 증언하고 있다.

2.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요 젖’이라는 외설적 해석

1) 예수의 옆구리 상처는 자궁이라는 해석은 외설이다.

여성 퀴어신학자 엘리자베스 스튜어드는 다음같이 젠더주의적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요19:34), 이 상처는 곧 여성의 자궁이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곧 여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이며 또한 젖이다.¹⁶⁾ 이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웅동체로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여성으로 전환되신

14) Elizabeth Stuart,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65.

15) 이상원,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347.

16) Elizabeth Stuart,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66.

다고 왜곡한다.

<반론> 예수의 옆구리를 자궁으로 보는 것은 예수의 몸을 여성화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여성이 생리적으로 흘리는 피로 간주하는 것은 외설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의 대속 피를 젠더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전 맥락에서 벗어나는 젠더주의적 왜곡이다. 성경과 정통개혁신학에 의하면 예수의 옆구리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같이 증언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2) 창에 찢린 상처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구강 섹스로 신성 모독 해석.

여성 퀴어신학자 에미 홀리우드¹⁷⁾는 다음 같이 젠더주의적으로 해석한다: 창에 찢린 상처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여성의 성기의 외음부에 입을 맞추는 구강섹스(oral sex)이며,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핥는 것은 구강섹스에서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를 받아 마시는 행위다. 따라서 수녀들이 그리스도 상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입을 맞추는 것은 여성 동성애(lesbianism) 행위다.¹⁷⁾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벗어난 신성모독적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론> 예수의 상처에 입맞춤을 구강 섹스로 해석하는 것은 외설의 극치다.

정통개혁신학에 의하면 예수의 피흘리시는 상처에 입맞춤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행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떡은 예수의 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 속에서 예수는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의 사건을 젠더주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3. 부활한 예수의 몸은 다젠더적(多性的)이라는 해석도 젠더주의적 왜곡.

1) 부활한 예수의 몸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리바꿈이 가능한 몸으로 왜곡

스튜어트¹⁸⁾에 따르면 예수의 몸은 부활을 통하여 “다젠더적인 몸”(multi-gendered body)이 된다.¹⁸⁾ 그리스도의 다젠더적(多性的)인 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투과적이고, 범신체적이고, 자리바꿈이 가능한”(permeable, transcorporeal, and transpositional) 몸이 된다.

<반론> 부활한 예수의 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의 몸을 초월한 몸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더 이상 남성과 여성에 갇힌 몸이 아니다. 그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예수의 부활의 몸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

17) Amy Hollywood,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ueer Theology*, 163.

18) Elizabeth Stuart,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66.

2) 부활한 예수를 붙잡고 대화한 막달라 마리아와 행위를 이성애적 사건으로 왜곡

제라드 와드(Gerard Ward)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시도한 행동을 남성의 입장에 서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외설적으로 해석한다.

<반론> 초자연적 능력의 부활 사건을 남녀 애정 사건으로 평가절하시키는 소설적 공상이다.

와드의 퀴어적 해석은 다빈치 코드의 연장 선상으로 소설적으로 상상된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연인 관계를 예수 부활 사건에 주입시키는 젠더주의적 해석이다. 이는 본문의 맥락에도 배치된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나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만류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요 20:17a).

3) 부활한 예수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는 도마의 행위를 동성애적 사건으로 왜곡

제라드 와드(Gerard Ward)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는 사건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도마와 더불어 동성애적인 사랑을 주고 받은 사건으로 해석한다.¹⁹⁾

<반론> 도마의 신앙고백을 도외시한 젠더주의적 왜곡.

와드의 해석은 전혀 본문과 거리가 먼 젠더주의적 왜곡이다. 예수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7-28). 실증주의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4) 예수 부활을 “퀴어 성해방의 소망”으로 왜곡

중국계 미국 성공회 신부(神父)요 퀴어신학자요 미국 매세츄세츠주 캠브리지 성공회신대 교수인 패트릭 쉑(Patrick S. Cheng)은 예수의 부활이란 “퀴어 성해방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활절이란 퀴어 성해방(queer sexual liberation)의 희망이 된다. 성 해방을 위한 퀴어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부활절의 희망이다.”²⁰⁾

<반론> 예수의 부활사건을 단지 성 해방 사건으로 젠더주의적으로 왜곡.

19) Graham Ward, “There is no sexual difference,” in *Queer Theology*, 78.

20) Patrick S. Cheng, *From Sin to Amazing Grace: Discovering the Queer Christ* (New York, NY: Seabury Books, 2012),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며 이는 동성애 등 죄와 사망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인류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쳉은 예수의 부활이 사회적 죄와 억압된 제도와 왜곡된 성과 동성애 중독으로 비인간화 된 성소수자들의 해방 사건임을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탈동성애 해방의 기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III. 성경해석론, 교회론, 구원론, 목상론을 젠더주의로 왜곡

1.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왜곡하여 가르친다.

퀴어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거민이 심판을 받은 사실(창 19:1-29)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기(“끄집어 내어 알리고 했던 무례함”) 때문이라고 왜곡한다. 퀴어신학자들은 소돔 고모라 심판 이야기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겔 16:49)에 연결시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닝스는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성서가 죄라고 판정하는 것이 탐욕과 교만과 폭력이라는 것”을 있게 하며, “동성애자라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고 주장한다.²¹⁾ 알타우스-레이드(Althaus-Reid)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랑의 표현의 하나라고 하며. 오히려 이성애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변태적인(pervasive) 주장이고 이데올로기적 질서(the ideological order)이므로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페트릭 히긴스(Patrick Higgins)는 동성애를 변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변태적인 사고라고 역공격한다.²³⁾

<반론> “상관하리라”(야다, 𐤕𐤁𐤁 창 19:5; 샷 19:22)는 “악을 행치말라”와 연관시키면 동성애 폭행인 것을 알 수 있다.

1)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폭도들에게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은 이들이 성적 목적으로 나그네에 접근(“상관하리라”(야다, 𐤕𐤁𐤁 창 19:5)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롯의 딸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롯은 이들에게 “악을 행치말라”(창 19:7)고 했던 것이다.

2) 사사기 19장에서 레위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노인의 집에서 유숙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주인에게 말한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

21) Theodore W. Jennings, Jr.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s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Pilgrim Press, 2003, 박성훈 역,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동연, 2011, 20-23; 이송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41-42.

22) Marcella Althaus-Reid, *Indecent Theology*, 200.

23) 페트릭 히긴스는 “이성애적 독재”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Patrick Higgins, *Heterosexual Dictatorship* (London: Fourth Estate, 1996).

리라”(삿 19:22b)여기서 불량배들이 원하는 대상은 레인의 남자가 아니라 레위인 남자 자신이다. “야다:(יָדָא)라는 단어는 창세기 19장에서와 같이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²⁴⁾ 이들은 이성 아닌 동성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되,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인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창세기 19장에서와 같이 노인은 말한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삿 19:23). 노인은 나그네 대신 자기 첩을 내어, 이들이 첩을 밤새도록 욕보여 죽게만든다. 이런 행위는 “음행과 망령된 행위”(삿 20:6,10)다. 이런 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한다(삿 20:12-13).

3) 레위기 18장22절은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 금하는 동성애 금기 규정이고, 20장13절은 ‘동성애자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니 반드시 죽이라’는 동성애 처벌 판례법이다.²⁵⁾

4) 선지자 에스겔의 소돔 죄악 책망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 하며”(겔 16:49)은 그 후속절이 말하는 가증한 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 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 16:50)과 연결되어 있다. 50절을 교만하고 가증한 일이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렘 23: 14).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유일한 죄는 아니다. 이들은 이웃을 행한 불의와 음란한 성행위 등 불법을 행했다. 동성애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악 중 하나였다.²⁶⁾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2.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만 강조: 동성애자 회개(용서 받은 자들의 공동체) 부인

퀴어신학자들은 교회는 성적 정향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세례로 그가 타고 난 성이 상대화된다고 주장한다.²⁷⁾

<반론> 죄 용서를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거부하고 있다.

퀴어신학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교회가 죄에서 돌아선 용서받은 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독일의 보편사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²⁸⁾고 했다.

24) 배정훈, “제1장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2016, 60.

25) 배정훈, “제1장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2016, 61.

26) 배정훈, “제1장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2016, 59

27) Kathy Rudy,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Boston: Beacon Press, 1997); Elizabeth Stuart, “Sexuality: The View from the Font (the Body and the Ecclesial Self),” *Theology and Sexuality* 11 (1999): 7-18.

28) Wohlfart Pannenberg, Interview, *Christianity Today*, November, 1996.

3. 구원론: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단적 구원론

퀴어신학은 성경과 전혀 다른 다음의 왜곡되어 그릇된 구원론을 주장한다.

1)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왜곡한다.

퀴어신학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복내림 대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 18:18) 구절에 있는 “천하 만민”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된다고 본다.

<반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구약과 신약은 동성애자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8장 8절의 복의 약속은 만민에게 주어져 있으나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에게 실현된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17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17-18).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행한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12)

2) 예수의 십자가 피흘리심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라는 대속교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

퀴어신학은 동성애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성령의 능력이 동성애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필요도 없다. 헬미니악은 동성애 습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⁹⁾ 퀴어신학은 구원 받는 것이 동성애를 포용하며 조장하는 삶이 된다³⁰⁾고 주장한다.

<반론>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부인한다.

동성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니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필요없다고 본 퀴어신학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본질을 훼손한다. 정통신학은 주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비롯한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롬 6:6-7)

29) 이송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36.

30) 이송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43.

4. 목상을 성관계의 오르가즘과 동일시

로버트 고스(Robert Goss)는 목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범신론적인 연합의 체험을 성관계에서 겪는 오르가즘과 동일시한다: “오르가즘의 행복은 친밀하고 장엄하며 개념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그리스도에 대한 목상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목상을 통하여 함께 사랑에 참여할 때 성적이면서도 영적인 잠재성은 평범한 오르가즘의 문턱을 넘어서서 두 사랑의 파트너들을 새로운 실재의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³¹⁾

<반론> 목상을 성적 절정 경험인 오르가즘에 비유함으로써 목상을 외설화시킨다.

정통개혁신학에 의하면 목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근이며, 이는 어떤 성적인 희열과 아무런 상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III. 퀴어신학은 성경을 자의적(恣意的), 독신적(瀆神的)으로 해석해 동성애를 정당화한 다른 괴기(怪奇) 사상이요 사도적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다.

1. 성경 해석 방법이 젠더 이데올로기(인간을 젠더로 해석하는 무신론)에 지배되고 있다.

종교개혁적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인 “성경에 의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동성애는 정당하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다. 일반 이단들과 다를 바 없이 임의적 성경해석을 하고 있다. 이단인 여호와 증인, 모르몬교, 구원파,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성적 음란을 공개적으로 조장하지 않으나 퀴어신학은 21세기 성문화에 어필하면서 음란과 방탕을 미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지난 2018년 8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동성애 퀴어신학을 강연하여 동성애 급진적 신학을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퍼트리고 있다. 지난 1960년대 토마스 알타이저(Th. Altizer)사신 신학의 토대에서 신학수업을 받은 미국 시카고 신대 교수요 신부(神父)인 테오도르 제닝스(T. W. Jennings)의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제닝스는 그의 스승 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는 한때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멸할 세속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독교 이후의 신학’(Post-Christian Theology)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³²⁾

2. 퀴어신학은 예수를 동성애자로 보면서 기독교를 동성애교로 만들고 있다.

제닝스는 역사적 예수마저 동성애자로 해석함으로써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데, 특히 예수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을 개연성을 제기한다.³³⁾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31) Robert Goss, *Queering Christ: Beyond Jesus Acted Up* (Cleveland: Pilgrim Press, 2002), 22.

32) (최근 한국 방문하여 강연한 테오도르 제닝스 퀴어신학 논평서), 2018년 10월 1일
테오도르 제닝스의 퀴어신학은 예수를 동성애자로 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단신학이다.

33) Theodore W. Jennings, Jr. *The Man Jesus Loved*,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

안겨 누워있는 육체적 친밀함에서 평범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동성 간에 육체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요 13:21-26). 더 나아가 제닝스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옷을 벗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의 무릎에 눕거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짝 기대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은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가 여자로써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³⁴⁾

그러나 예수는 동성애자나 간음한 자들을 회개하라고 하신 분이다. 예수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b). 예수는 다섯 남편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불륜생활의 회개를 명하셨다. 그녀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라고 대답했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고 그녀의 삶을 청산하도록 가르쳤다(요 4: 16-18).

3. 퀴어신학자들은 퀴어축제, 성평등 정책,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여 음란과 방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퀴어신학은 성경이 음란과 타락을 용납하고 정당화 한다고 해석하여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주요교단(미 연합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그리스도교회, 구세군, 등)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성찬과 세례를 주고, 심지어 동성애자 향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이에 거부하는 2014년 복음주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장로교회연합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가 새로운 교단이 설립되고 거대한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4. 동성애는 가증한 일(성중독)이고 이를 지지하는 퀴어신학은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이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로 알려진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에서 한 학생이 소위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를 드려 논란이 되었다. A학생 자신이 해당 학생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예배당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포함해 여러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자신은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글도 남겼다. 그는 "오늘 채플 시간에 무지개색으로 입고 예배드린 걸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학교에 제재나 징계를 청원할거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동성애를 언약의 무지개로 본 장신대 무지개 사태(2018년 5월)는 심각한 신학적 이단적 행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³⁵⁾ 무지개 사건은 성경이 명백히 가증하다(מבזבז, 토에바, detestable, 레 18:22)고 정죄한 동성애를 미화시키나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퀴어신학은 교리적으로는 이단사

야기』, 동연, 2011, 411-416.

34) Theodore W. Jennings, Jr. *The Man Jesus Loved*,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동연, 2011, 117-122.

35) <장로회신대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태 논평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2018년 7월 18일 장로회신학대학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건은 선지동산의 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예장 통합 총회가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통합교단이 무지개로 덮일 것이다.

상이라고 말할 밖에 없다.

이단사상 가운데 크게 두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교회기생적 이단과 교회적대적 이단이다. 교회 적대적 이단이란 통일교, 천부교, 여호와의 증인, 물문교, 안식교(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안상홍파) 등 기존 역사적 교회를 이단으로 보고 구원이 없다고 보고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이단이다. 교회 기생적 이단이란 교회 안에서 일어나 기존 교회의 교리에 새로운 해석을 하여 새로운 분파 운동으로 나타나는 운동이다. 초대교회 시 갈라디아교회에서 일어난 유대주의자들(은혜에 다 할례 첨가), 4세기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펠라기우스(인간의 자유의지 강조), 타락한 성직자들의 성례 효력에 관련하여 효력 없다고 선언한 도나투스파,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대하여 자유의지론을 주장한 에라스무스. 그리고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은혜와 공로를 결정한 17세기 트렌트 회의 등이 교회기생적 이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펠자는 동성애 교리를 성경적이라고 보는 퀴어신학은 단지 동성애 행위만이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교리를 인정하는 퀴어신학의 전 체계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와 구원론, 교회론을 총체적으로 외설화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기생적 이단 가운데 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본다. 이러한 교회 기생적 이단은 이미 역사적으로 있어왔는데 남왕국 유대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대교 안에서 야웨 신앙과 함께 있었던 바알 신앙, 두 신앙의 혼합이었던 혼합주의 신앙을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혼합주의(syncritism)를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인 젠더교로 변화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 기독교는 젠더 기독교로 변모될 것이다.

5. 동성애 복음은 사도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퀴어신학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할 필요 없이 천국에 간다는 동성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는 죄인(동성애자 포함)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탈동성애자)이 되도록 하고 거룩한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도적 복음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 바울은 동성애 복음에 대하여 똑 같은 경고의 말을 할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17절).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

퀴어신학 추종자들의 신앙은 예수를 동성애자로 보고, 하나님을 동성애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동성끼리의 성애를 일으키는 분으로 본다면 이는 선지자들, 사도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배도(背道)다.

맺음말

신약교회 이단 문제가 예수의 성육신 이슈였고, 3세기 교회의 이단 문제는 예수의 신성 문제였고, 종교개혁시의 문제는 의신칭의론이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 문제는 동성애 이슈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허용되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본질적 문제이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는 동성애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고 할찌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동성애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동성애는 성 중독이며 이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Althaus-Reid, Marcella. *Indecent Theology*. London: Routledge, 2000.
- . *The Queer Go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 Brown, A. *Queer Thing Happened to America*; "The Darker Side of LGBT Theology: From Queer Christ to Transgender Christ," available at: <https://stream.org/the-darker-side-of-lgbt-theology-from-queer-christ-to-transgender-christ>.
- Cheng, Patrick S. *From Sin to Amazing Grace: Discovering the Queer Christ*. New York, NY: Seabury Books, 2012.
- Goss, Robert E. *Queering Christ: Beyond Jesus Acted Up*.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2.
- Hollywood, Amy.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ueer Theology*.
- Isherwood, Lisa. "Queering Christ: Outrageous Acts and Theological Reflections," *Literature and Theology* 15/3 (2001): 249-61.
- Jennings, Jr. Theodore.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Cleveland: Pilgrim Press, 2003; 박성훈 역,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동연, 2011.
- Johnson, Jay Emerson. "A 'Queer God'? Really? Remembering Marcella Althaus-Reid," Center for Lesbian and Gay Studies, Pacific School of Religion (March 5, 2009).
- Jordan, Mark D. "God's Body," in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erard Loughlin. Malden: Blackwell, 2007, 281-292.
- Loughlin, Gerard. ed.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 . "Omphalos."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115-127.
- . "Introduction: The End of Sex." in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ed. Gerard Loughlin, Malden: Blackwell, 2007, 1-34;
- Montefiore, H. W. "Jesus, the Revelation of God," in *Christ for Us Today*. Papers read at the Conference of *Modern Churchmen*, Somerville College, Oxford, July 1967, edited by Norman Pittenger. London: SCM Press, 1968.
- Pannenberg, Wohlfart. Interview, *Christianity Today*, November, 1996.
- Stuart, Elizabeth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65-75.
- Ward, Graham. "There is no sexual difference," in *Queer Theology*, 76-85.
- Rudy, Kathy.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Boston: Beacon Press, 1997.
- Stuart, Elizabeth "Sexuality: The View from the Font (the Body and the Ecclesial Self)," *Theology and Sexuality* 11 (1999): 7-18.
- Swicegood, Thomas L. P. *Our God Too*. New York, NY: Pyramid Books, 1974.
- 김영한. 『젠더주의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두란노, 2018.
- 배정훈.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킹덤북스, 2016, 43-73
- 이상원.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in: 「기독교 동성애 대팩 아카데미」, 2017.2.20. 343-367.
- 이승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출처: 종교개혁 5백주년 기념 제15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동성애, 과연 인권인가?』. 백석대, 2017.11.24., 27-42.
- <장로회신대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태 논평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2018년 7월 18일
- 장로회신학대학 '동성애 무지개' 신학 사건은 선지동산의 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 예장 통합 총회가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통합교단이 무지개로 덮일 것이다.